

건설동향브리핑

제387호 (2012. 11. 26)

■ 경제 동향

- 9월 국내 건설수주 14.8% 감소

■ 정책 · 경영

- 신규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으로 윤리 문화 정착 유도
- 기후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 과제

■ 정보 마당

- 국민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프라’를 원한다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강남 스타일’에서 배우는 ‘건설 스타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9월 국내 건설수주 14.8% 감소

- 9월 실적으로는 5년 내 최저치인 6조 1,669억원 기록 -

■ 국내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4.8% 감소, 2개월 연속 하락

- 2012년 9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 부문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8% 감소해 9월 실적으로는 5년 내 최저치인 6조 1,669억원을 기록함.
 -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한 이후, 8월에는 민간과 공공 모두 위축돼 전년 동월 대비 29.9% 감소하였으며, 9월에도 14.8% 감소해 2개월 연속 하락
 - 올 9월 수주액 6조 1,669억원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인 지난 2008년 9월의 5조 8,271억원 이후 9월 실적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임.

■ 공공 부문 토목수주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7% 감소

- 공공 부문은 토목수주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비 43.7% 감소한 1조 8,417억원을 기록함.
 - 공공 토목수주는 도로와 발전소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공사 발주가 없어 9월 수주로는 1999년 9월의 4,996억원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인 5,241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48.9% 감소함.
 - 공공 주택수주는 9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 많은 8,720억원을 기록해 금액상으로는 양호했음. 그러나, 작년 9월에 혁신도시 및 마곡 지구의 개발 물량으로 1조 8,743억원이라는 이례적인 수주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5% 감소
 -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세종시 정부 청사 공사와 일부 지방 이전 공기업의 건축물 공사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5% 증가함.

<2012년 9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1. 9월	7,239.9	3,270.1	1,025.9	2,244.1	1,874.3	369.8	3,969.9	998.5	2,971.4	1,514.2	1,457.1
2012. 9월	6,166.9	1,841.7	524.1	1,317.6	872.0	445.5	4,325.2	987.2	3,338.0	2,166.8	1,171.2
증감률	-14.8	-43.7	-48.9	-41.3	-53.5	20.5	9.0	-1.1	12.3	43.1	-19.6
2011. 1~9월	61,015.5	16,994.9	9,997.0	6,997.8	3,509.5	3,488.4	44,020.7	11,559.3	32,461.4	18,460.1	14,001.3
2012. 1~9월	65,130.3	16,659.0	10,288.1	6,370.9	3,585.6	2,785.3	48,471.2	13,431.3	35,039.9	20,472.3	14,567.6
증감률	6.7	-2.0	2.9	-9.0	2.2	-20.2	10.1	16.2	7.9	10.9	4.0

주 : 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 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 통계청, 2012. 10. 31.

■ 민간 부문 전년 동월 대비 9.0% 증가, 금액상으로는 저조

- 민간 부문은 주택수주의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9.0% 증가한 4조 3,252억원을 기록
 - 이로써 민간 수주는 지난 8월에 34.6% 감소한 이후 다시 반등. 2005년부터 2010년까지 9월 평균 수주액이 5.4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금액상으로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 토목수주는 설비투자의 위축으로 기계설치 수주가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
 - 주택수주는 전년 동월비 43.1% 증가한 3조 3,380억원을 기록.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재건축수주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경기도와 영남 지역에서 신규 수주가 양호했음.
 -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공장 및 민간 오피스 물량의 위축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6% 감소한 1조 1,712억원을 기록, 2개월 연속 감소함.

■ 대부분 공종에서 수주 감소, 사무실과 점포, 발전 및 송전 등 일부 공종은 증가

- 세부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에서는 사무실 및 점포 수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함.
 - 주택수주는 공공 부문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하였으며, 공장 및 창고, 관공서 수주 또한 각각 2.2%, 2.8% 감소함.
 - 한편, 사무실 및 점포 수주는 민간 부문의 수주가 감소하였으나, 공공 사무시설 및 오피스 발주의 영향으로 12.7% 증가함.
- 토목 공종의 경우 발전 및 송전 수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함.
 - 도로 및 교량 수주와 철도 및 궤도 수주는 각각 28.1%, 69.3% 감소해 부진하였음.
 - 상하수도 및 토지조성 수주는 각각 11.0%, 58.1% 감소하였음.
 - 한편, 발전 및 송전 수주는 북평 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및 한국 서부발전의 태안 IGCC 복합화력 발전소 수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7% 증가함.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상하수도	토지 조성	발전 및 송전	기계 설치
2012. 9월	3,038.9	642.9	532.4	370.9	70.6	343.4	34.1	49.7	69.5	566.9	281.0
증감률	-10.3	12.7	-2.2	-2.8	-78.7	-28.1	-69.3	-11.0	-58.1	72.7	-54.2
2012.1~9	24,057.9	6,913.7	4,748.3	4,764.3	926.6	3,517.8	1,088.1	573.6	2,213.4	7,768.0	6,512.1
증감률	9.5	-1.9	7.2	8.2	-42.5	20.6	-57.7	-10.8	-7.4	133.8	-14.6

자료 : 통계청

박철한(연구원 · igata99@cerik.re.kr)

신규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으로 윤리 문화 정착 유도

- 신규 건설업체의 의무 교육훈련이수제도의 도입 필요 -

■ 검토 배경

-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 산업에 종사하는 건설 종사자들과 건설업체들의 사회·경제적 역할의 인식과 책임 의식이 중요한 산업임.
 - 특히, 실질적인 생산 주체인 건설업체들의 준법 경영과 건설산업 참여에 따르는 소명 인식 및 윤리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건설업체와 그 종사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을 받는 건설업체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 업체의 약 1/4이 최근 5년 내에 신규 진입한 건설업체들임.
 - 2011년 1년 간 행정 제재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설립 5년 이내의 건설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3.1%에 이르렀음.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상 행정 제재 처분 종합 건설업체의 설립 연도별 현황>

건설업 등록일		처분 분야			계
		영업 정지	과태료	과징금	
5년 이내	0~3년 이내	141	27	2	168
	3년 초과~5년 이내	278	23	2	304
	소계	419	50	4	472
5년 초과		1,405	170	50	1,575
총계		1,824	220	54	2,047

- 부적격 업체들의 시장 진입은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도급 업체 등 제3의 피해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격한 건설업체들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다른 업종의 신규 진입 사업자 의무 교육 사례

-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일부 산업의 경우,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해당 산업과 관련된 법규 및 윤리 의식 함양을 유도하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식품산업으로, 관련 법규에 의거한 의무 교육 이수를 설립 및 영업의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 밖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하여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음.
 - 이들 법정 의무 교육의 내용은 해당 업종 관련 법률과 해당 업종의 신규 사업자로서의 법적 준수 사항 및 윤리 및 소명 의식 정립 및 준법 영업 활동 등을 담고 있음.
 - 교육 시간은 10시간 내외로 편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련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음.

■ 신규 진입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방안

- 건설업체의 비윤리적인 행동은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 등 산업 내 유·무형의 경제·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바, 정부 차원의 적절한 통제 장치의 마련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신규 진입 건설업체에 대한 교육훈련제도의 도입은 향후 건설산업 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고 윤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건설업체에 대한 의무 교육훈련제도의 성격은 그 취지에 맞도록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신규 진입 건설업체의 대표자에게 교육 훈련 이수를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 둘째, 등록 요건은 아니지만 교육 훈련 이수시 행정 제재 처분 등에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교육 내용은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관련 법규 설명 및 건설기업의 윤리, 건설업체 CEO로서의 사명과 자세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10시간 내외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시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건설 단체인 관련 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규제로서의 성격도 존재하나 신규 진입 건설업체 대하여 교육훈련이수제도를 도입할 경우, 신규 진입 건설업체의 소명 의식과 올바른 경영관 형성, 관련 법률 및 윤리, 투명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건설산업 내 건전한 시장 질서의 확립과 윤리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김영덕(기획팀장 · wontkim@cerik.re.kr)

기후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 과제*

- 시설 수요의 변화 및 관련 제도의 보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

■ 건설산업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 에너지 소비 등에 큰 영향

- 온실 가스의 증가에 의한 기후 변화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세계 경제의 약 80%가 기상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날씨에 민감한 산업이 GDP의 5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기상 이변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2100년까지 세계 GDP의 5~20%에 이를 전망
 -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할 계획
- 특히, 건설산업의 분야는 에너지 소비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 그 역할이 중요
 - 사회 전체가 사용하는 원자재의 30%가 건설산업으로부터 투입되고, 건설 시설물에서 총 에너지 소비의 40%가 이루어지고 있음.
 - 빌딩 부문은 온실 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로 평가됨.

■ 기후 방재 관련 투자 및 자재 가격 등,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다양

- 기후 변화는 방재 시설 및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증가를 비롯해 자재 가격 상승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설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방재, 신재생 에너지, 항만 등의 분야에서 건설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건설투자는 공사비의 상승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큼.
 - 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 이용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업 활동이 기업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상 이변에 따라 가장 시급히 대처해야 할 과제는 방재 시설의 확충

- 일반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2012년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6.5%는 기상 이변에 따른 방재 시설의 보강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2년 11월에 발간한 「기후 변화에 대응한 건설산업의 역할 모색과 과제」 연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연구 보고서의 전문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www.cerik.re.kr)에 수록되어 있음.

<기후 변화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기회 및 위협 요인>

항목	내용
시장	- 에너지 저소비형 자재 수요 증가 - 기존 시설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수요 증가 - 시설의 집적, 도심의 회귀 현상 강화(아파트 선호, 도시 선호) - 장기적으로 공사비 및 유지 관리 비용의 증가로 건설투자 감소
규제	- 에너지 설계 기준 강화 -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 강화 - 도시계획 규제 강화
시설	- 방재 관련 인프라 수요 증가 -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설 수요 증가 - 해수면 상승 관련 항구 시설 투자 증가 - 시설물 성능의 업그레이드 및 유지 관리 효율화 - 도로 등 일반적 인프라 시설 투자 비중 감소
비용	- 에너지 다소비 자재 가격 상승 - 운송비 증가
생산	- 태풍 등 기상 이변에 의한 공기 지연 - 동절기 기온 상승으로 작업 불능 일수 감소
인식	- 환경 이슈 등에 대한 기업 평판의 중요성 증대 - NGO 등의 영향력 확대

-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도심이 폭우로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경험한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으로 해석됨.
- 자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재 시설로는 도시의 홍수 피해에 대비하는 지하 방수로를 끄는 응답이 전체의 45.8%로서 다른 시설에 비해 상당히 높음.
- 시민들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하면서,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

■ 총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발주제도 도입 등 제도 보완 필요

-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총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고려한 시설 발주 및 에너지 효율 기준의 강화 등 정부의 선도적 역할 필요
 - 기존 시설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리모델링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 국가 예산의 1%에 불과한 방재 예산을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
 - 건설업체들의 경우, 생소한 에너지 관련 사업 분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권오현(연구위원 · ohkwon@cerik.re.kr)

국민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프라’를 원한다

- 미국 록펠러 재단의 대국민 인프라 관련 설문* -

■ 인프라 투자 상황에 큰 관심

- 대다수의 응답자가 국가 인프라 투자의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프라 관련 예산 및 정책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응답자의 91%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 중 “...현재 우리 세대는 우리의 자식 세대를 위해 인프라에 투자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조부모 세대가 그랬듯이...”라는 내용에 적극 동의
 - 응답자의 71%는 어느 현안보다 건설 교통 관련 입법안에 대해서 양당 국회의원들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응답. 64%는 현재 국가 시설물 및 교통 인프라의 유지 관리에 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평가

■ “인프라 개선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

- 대다수의 응답자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인프라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
 - 응답자의 66%가 국가 인프라 개선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현재 미국의 인프라 시스템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불충분(부적당)하다고 평가
 - 응답자의 79%는 미국이 미래에도 경제 대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의 개선 및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 응답자의 80%가 교통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연방 펀드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설, 제조 및 엔지니어링 부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

■ “정부 예산 인프라의 질적 개선에 우선 투입돼야, 개선된 인프라는 국가와 시민에 큰 혜택”

- 유권자들은 정부 예산이 가장 시급히 투입되어야 할 두 분야로 ‘안전한 길’과 ‘원활한 교통 수단’을 꼽았음.

* 본고는 2011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Hart Research Center와 Public Opinion Strategies 연구소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 설문(록펠러 재단 후원)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응답자의 57%가 ‘안전한 길’을 위해 정부 예산이 조속히 투입되어야 한다고 응답
- 응답자의 32%는 ‘다양한 교통 수단의 확충’을 두 번째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
-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분야에 보다 많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적
 - 응답자 중 85%가 이동 시간 단축이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응답
 - 또한, 응답자의 80%가 국가와 지역 사회가 보다 확장되고 개선된 대중 교통 시스템으로 인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응답

■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에 호의적, 세금 인상에는 유보적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국가 인프라 사업을 위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그로 인해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세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냄.
 - 응답자의 78%가 설문에서 제시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안에 대해 수용 가능한 입장을 보였음.
 - 응답자의 60%는 국가 인프라 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Bank)의 설립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교통 채권의 발행, 정유 회사를 위한 보조금의 철폐 등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긍정적인 응답
 - 그러나, 응답자 중 71%는 세금 인상과 같이 개별적인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의 입장을 나타냄.

■ “인프라는 국민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수단”

- 설문 결과의 핵심은 ‘미국 국민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프라를 원하고 있다’로 요약될 수 있음.
 - 최근 생활형 인프라 시설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위 설문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의 인프라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얼마만큼 향상시키고 있는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

강상혁(연구위원 · shkang@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1.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최, 평가위원회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참여 -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 사업 성과 분석 연구 용역 수행 기관 선정 참여
	국토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연구원 주최, 주택 전문가 정책 토론회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참여 -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 및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지표, 부동산 개발 사업 평가 체계 운영 원칙 및 운영 방안 등
11. 20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주최, 외부 평가위원회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참여 - 부동산 관련 금융 투자업 인가 심사에 참여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 주최, 건설 근로자 능력 개발 활성화 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주제 발표 참여 - 건설 일용 근로자 훈련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의
11. 23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재무국 자산관리과 주최, 서울시 대규모 이전 적지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서울시의 대규모 이전 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주최, 정기 학술대회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토론자 참여 - 최근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자문

■ 주요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 포커스	기후 변화에 대응한 건설산업의 역할 모색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이상 기후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 - 세계 경제의 약 80%가 기상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날씨에 민감한 산업이 GDP의 52%에 이룸. - 기상 이변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2100년까지 세계 GDP의 5~20%에 이를 것으로 예상 건설산업은 에너지 소비 및 기후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 그 역할이 중요 기후 변화는 방재 시설 및 신재생 에너지 투자 증가를 비롯해 자재 가격 상승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설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방재, 신재생 에너지, 항만 등의 분야에서 건설 투자가 제한된 범위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건설 투자는 공사비 상승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 이용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업 활동이 주목을 받아 기업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5%가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 재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방재 시설의 보강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자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재 시설로 도시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지하 방수로를 꼽은 응답의 비중이 45.8%로서 다른 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인식하면서,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

‘강남 스타일’에서 배우는 ‘건설 스타일’

누가 뭐래도 올 한 해 최대 히트상품은 가수 사이의 ‘강남 스타일’이다. ‘강남 스타일’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말춤 신드롬을 일으킨 것이다. ‘강남 스타일’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하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철저하게 탐구하고 연습해야 한다. 즉,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 수 있는 무엇을 만들기 위하여 피눈물 나게 노력해야 한다. 수많은 젊은 개그맨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디어를 짜고 연습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 점에서는 가수 사이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사이에게는 남다른 점 하나가 더 있다. 그것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강남 스타일’의 성공 비결에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려는 삶의 자세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강남 스타일’은 ‘사이 스타일’인 것이다.

성공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길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길이 그것이다. 전자의 길은 상대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비하여 후자의 길은 철저하게 자신의 강점과 선호에 초점을 맞춘다. 후자가 바로 ‘사이 스타일’인 것이다. 열정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은 어느 순간 강력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의 공통된 심성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는 차라리 ‘사이 스타일’처럼 자신의 강점을 살려 차별화하는 것이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설령 운이 나빠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자신만이 느끼는 행복감은 얻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과거 고도 성장 시절처럼 모든 건설업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미래 시장이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리 건설업체들은 저마다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과거처럼 무턱대고 따라가기, 묻혀가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비자와 제대로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혹독한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닐까. ‘강남 스타일’을 만든 ‘사이 스타일’처럼 수많은 ‘건설 스타일’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건설경제, 2012. 10. 15>

윤영선(연구위원 · ysyoon@cerik.re.kr)